



「밝게살기 汎國民운동」 적극 추진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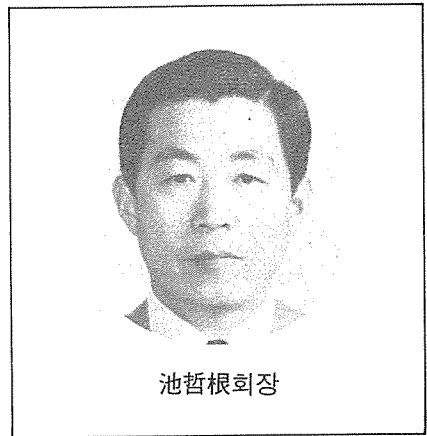
照明연구센터 설립... 체계적연구 뒷받침돼야

『産業의 발달과 技術의 진보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照明의 개념은 단순히 「밝힌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이상적이며 심미적인 면과 경제성등을 고려한 高度의 技術과 藝術이 조화를 이룬 첨단학문 분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활 및 산업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사용도 다양해져서 이에 따른 전기설비의 技術도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韓國照明·電氣設備學會 池哲根회장(서울대공대 전기공학과교수)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전등불을 밝힌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지난 87년 3월 조명·전기설비학회가 설립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사실 이 학회는 타학회와는 달리 조명 및 전기설비업계의 공통어로기술을 타개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産學협동체제 구축을 위해 업계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學會가 단기간내에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발한 참여가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池회장은 학회의 설립으로 조명 및 전기설비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技術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고 정보교환의 場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학회사무실을 건축회관



池哲根회장

으로 옮겨 건축과 조명·전기설비의 學際間 종합된 연구의 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덧붙인다.

조명공학의 연구와 技術개발을 위하여 美國에서는 이미 80년전에 조명학회가 창립되었고 日本에서는 70년전에, 그리고 臺灣에서도 10년전에 학회가 설립되어 학계의 발전은 물론 조명공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수준에 있다는 것.

특히 日本만해도 조명학회와 전기설비학회가 별도로 설립되어 전문연구활동이 활발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제야 겨우 학회를 설립할 정도의 낙후된 수준을 면치 못한 실정이라고 밝힌다.

池회장은 조명환경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훨씬 어두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어두운 조명에 따른 視力저

하의 문제가 국민보건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오랜 가난속에서 몸에 밴 경제적인 생활습관으로 전기를 아껴 써 왔고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파동을 겪은후 「한집 한등 끄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여 어두운 조명환경에 익숙해져 있지요. 하지만 어둡고 불량한 조명환경하에서는 시력의 저하뿐만아니라 활동능률이 떨어져 생산성도 저하되므로 경제발전적 측면에서도 조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韓國電力公社의 후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시력보호, 활동능률향상 등을 위해 「밝게살기 汎國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학회는 우선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밝게 살기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한 지역에 조명학·안과학·심리학 관계교수 3명씩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 신문·방송등을 통한 매스콤홍보, 포스터·팜플렛 제작배포, 각 희망주택의 조명진단등을 6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들 지역주택의 조명진단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추천照度の 1/2 수준의 어두운 조도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추천조도의 90%에 육박하는 양호한 조명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

『이번 조사결과 도시주택의 평균조도가 추천조도의 1/2 이었던 7년전에 비해 조명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美·日등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국민보건, 활동성, 그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밝게 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池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대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밝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소득향상에 비례해 照度が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

당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더군다나 조명의 밝기가 범피해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美·日등의 나라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는데 그 예로 美國에서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실시한 가로등의 隔燈정책이 범피해의 현저한 증가를 보이게 한 반면 日本에서는 공원가로등의 조도를 높인 결과 범피율이 30%저하될 정도로 조명의 밝기가 범피유발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조명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조명연구센터」를 설립, 이 분야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학회에서는 對국민 홍보활동의 강화는 물론 「조명과 생산성향상」 「전기설비의 현대화」등을 주제로한 각종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조명업체에 대한 현장기술지도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학회지를 年4회에서 6회로 늘리겠다고 밝힌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기술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연구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조명·전기설비기술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문화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산품의 제조 및 소비에너지기술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요. 따라서 학회는 조명과 전기설비공학의 이론적, 기술적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명·전기설비분야에서의 학문과 기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우리나라 조명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權光仁 記>